

종족집단의 지역화과정에 관한 연구(II): 경관생산단계*

- 16~17세기 계보의식의 탄생과 사회관계망의 공간적 확장 -

전 중 한**

Regionalization of the Lineage Group in Korea(II): Landscape Phase(16C~17C)*

Jong-Han Jeon**

요약 : 연산과 회덕 지방에 있어서 16~17세기의 시기는 경관 생산과 사회적 관계망 확장 단계(landscape phase)로 대변된다. 그 만큼 사회적으로 의도된 다양한 상징경관이 생산되던 시기로서, 혈연관계를 중심 매개로 했던 이전의 생태적 정착 단계와는 다른 지역 정체성을 구성해갔다. 15세기를 지나면서 이들 지역에서 수위 종족집단으로 부상한 광산김씨와 은진송씨는 '권력 과시형 경관'을 지역에 이식하면서 중앙에서 획득한 자신들의 권력을 지방에 과시하였고, 16세기부터는 지방민들을 포섭하기 위한 '시혜·교화형 경관'을 생산하면서 지역사회에 완전히 착근할 수 있었다. 광산김씨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는 첫 번째 경관이 정회당이었고, 다음으로 양성당, 임리정이 생산되었다. 이러한 경관 창출은 순차적인 영역성 확대를 유도하였고, 영역성에 내포된 초기의 擬似空間的(pseudo-spatial) 성격은 보다 분명한 공간적 정초를 확립하면서 내실을 기해갔다. 이러한 경관 생산을 통해서 학문적 계보의식이 탄생하였고 그 계보의식은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향해서 확대, 심화될 수 있었다. 또 한가지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은 '시혜·교화형 경관'이 매개가 되어 연산의 광산김씨와 회덕의 은진송씨가 사회·공간적으로 결합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의 사회적 결합은 곧 공간적 영역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국지적'(local) 규모의 수위 종족집단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지역적'(regional) 규모의 지역사회가 형성되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연산과 회덕의 공간적 통합과 확장된 영역성은 광산김씨와 은진송씨가 주체가 된 지역화과정의 산물이었다. 사회적으로 생산된 이 공간성(spatiality)의 탄생 과정에는 학연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통혼을 통한 혈연 관계, 근거지의 지리적 인접성이라는 자연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연산·회덕권을 하나의 동일한 지역사회(community)로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렇게 출현한 공간적 영역과 지역 정체성은 오늘날까지 이 지방의 사회·공간적 의미를 구성하면서 중요한 층위로 존속하고 있다.

주요어 : 권력 과시형 경관, 시혜·교화형 경관, 계보의식, 사회·공간적 연망, 영역성

Abstract : It was the landscape phase that social relations were extended by production of landscapes during the 16C~17C. Core lineage groups in study area had extended socio-spatial nexus through making of the landscape of 'authority-ostentation'(권력-과시형 경관) and of 'kindness-civilization'(시혜·교화형 경관). Therefore they could gain a result that their power and authority took root in community perfectly. In the case of the Kims of Kwangsan(광산김씨), the first landscape of 'kindness-civilization' was Jungheodang(the learning room Jungheo), and next it was built Yangsungdang(the learning room Yangsung), and Imlijung(the pavilion Imli). Through this landscape production, the consciousness of scholastic genealogy was born, and this genealogy consciousness could be deepened and extended in regional scale. One more important feature in this phase is the point that the Kims of Kwangsan in Yeonsan area and the Songs of Unjin(은진송씨) in Hoiduk area could unite socially by the landscape production of 'kindness-civilization type' becoming intermediation. And these social union, that is to say, it do connote enlargement of the territoriality. It tells that community of 'regional' scale was formed by of core lineage groups of 'local' uniting each other.

Key Words : landscape of authority-ostentation, landscape of kindness-civilization, consciousness of scholastic genealogy, socio-spatial nexus, territoriality.

* 이 연구는 2002년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제100회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완한 것임.

**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Full-time Researcher, The Research Institute for Human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hilotopoer@yahoo.co.kr

1. 머리말

한국의 종족집단들에게 있어 경관 생산은 지역화 전략의 일환이다. 일반적으로 종족집단은 정주 공간을 확보하면서 생태적 근거지를 마련한 다음, 사회적 관계망 및 공간적 영역성에서 중핵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인접 장소의 다른 종족집단들과 여러 차원에서 경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수의 특정 종족집단이 일정한 공간 범위 내에서 지배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首位宗族集團으로 부각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들은 사회·공간적 연망(socio-spatial nexus)의 초점부를 지속적으로 점유하기 위해 다양한 상징경관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포함과 배제의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면서 보다 넓은 공간 스케일의 영역성을 확립하려고 한다. 이 단계부터 정주 공간의 지역적 성격은 '생태적 공간'으로부터 지역 엘리트(local elite) 중심의 '사회적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본 연구는 종족집단의 지역화과정에서 「생태적 정착 단계」(전종한, 2002b)를 넘어서는 이 같은 이행과정을 「경관 생산 단계」로 규정하고, 충청도 연산~회덕 지방¹⁾을 연구 지역으로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지리학계에서 종족집단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문화지리학, 사회지리학, 역사지리학, 촌락지리학의 일부로서 진척되어 왔다. 주요 성과를 몇 가지로 분류해 보면 종족촌락의 경관 특성이나 공간구조를 분석한 것(류제현, 1979; 김덕현, 1983; 장보웅, 1983), 거주지 이동과 정착과정을 연구한 것(川島, 1974; 양보경, 1980; 임병조, 2000; 전종한, 2002a), 일정한 지리적 범위 내에서 종족집단의 분포 상황 복원 및 종족촌락의 변모에 접근한 것(옥한석, 1986; 이문중, 1988; 1994; 이간용, 1994) 등이다. 이들 연구에 의해 종족집단과 관련된 지리적 요소들에 관한 다각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고, 특히 종족촌락의 형성 시기 문제나 공간 구조, 경관 구성 요소 등에 관해 상당한 부분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종족집단이 한 장소에 정착한 후 어떠한 과정으로 사회적 연망을 형성하고 공간적 영역성을 구축해 가는가 하는 문제, 즉 지역화과정에 관련된 연구는 극히 소수(홍현욱·최기엽, 1985)에 국한되고 있을 뿐 여전히 미흡하다. 또한 대부분 연구들이 하나 혹은 두 개 정도의 종족집단이나

종족촌락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회관계망 분석이나 지역적 규모에서의 영역성 확보와 관련된 과제들을 해명하는데 스케일상의 한계가 있었다. 종족집단에 의해 창출된 경관과 장소의 해석과 관련해서도, 그 속에 내포된 정치적 의도나 상징적 의미 누층성, 사회·공간적 실천들에 관한 탐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을 주목해야 한다(최기엽, 1993; 임덕순, 1998; 김덕현, 2001; 윤홍기, 2001; 전종한, 2001; 2002c; Relph, 1976; Sack, 1986; Agnew, 1987; Entrikin, 1991; Massey, 1993; McDowell, 1999; Osborne, 2001; Mitchell, 2003).

이 같은 문제의식에 주안을 두고, 본 연구는 16~17세기 연산과 회덕 지방에서 각각 수위종족집단으로 존재했던 光山金氏와 恩津宋氏를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시도하기로 한다. 두 종족집단은 14세기말~15세기초 각기 연산과 회덕 지방에 정착한 후 15세기를 지나면서 기존의 토착 종족집단을 제치고 새로운 정치적 권력 집단으로 부상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앙에서 얻은 정치 권력을 과시하거나 지방의 여타 종족집단을 사회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다양한 상징 경관들을 생산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지적 규모를 벗어나서 지역적 스케일의 영역성을 확보하기에 이른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가 검토하려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족집단에 의해 생산된 경관의 유형과 창출 배경, (2) 상징경관에 내포된 정치적 전략 혹은 사회적 의도, (3) 사회관계망의 확장에 따른 순차적 영역성 확대, 그리고 (4) 경관 생산과 영역성 사이의 호혜성이 그것이다.

2. 상징경관의 생산과 지역적 착근

1) '권력 과시형' 경관 생산

광산김씨는 15세기초 연산 지방에 정착한 후 중앙 정계에 연속 진출하며 현달하였다. 그렇지만 정치적 권력을 획득한 이후에도 광산김씨 근거지는 옮겨지지 않았고 여전히 연산 지방이었다. 정계에 진출한 주요 인물들의 묘소가 거의 연산 일대에 남아있다는 점이 그것을 증거한다. 그리고 광산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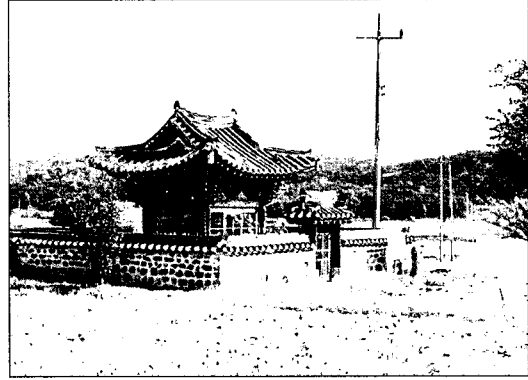


그림 1. 고정리 마을 입구(좌)에 위치한 양천허씨 정려(우)

① 고정리 소분지 입구 방면; ② 고정리 마을 입구; ③ 고정리(마을); ④ 김장생 묘소 방면.

주: 양천허씨 정려는 광산김씨가 세운 최초의 권력-과시형 경관으로서 정착지인 고정리 입구에 입지하여 이들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씨 종족집단이 연산 지방에 밀착한 핵심에는 이들에 의해 생산된 宗族景觀이 작용하고 있었다.

連山光金²⁾이 만들어낸 최초의 종족경관은 陽川許氏 정려이다. 양천허씨는 광산김씨가 연산 지방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헌한 인물이다. 그녀가 자신이 거주하던 개경에 머물면서 친부모의 의지대로 改嫁하였다면 연산의 光金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연산광김의 始祖母인 것이다. 남편 金問이 이른 나이에 卒하자 양천허씨는 3년간의 시묘살이를 다하였다고 하는데, 그 행실이 조정에 보고되어 1420년(세종 2년) 2월 21일 정려의 命이 내려진다.³⁾ 이 명에 근거하여 1467년(세조 13년)에 연산 고정리에 陽川許氏 정려가 세워진다. 이와 같이 중앙 조정으로부터 내려진 양천허씨 정려는 광산김씨 종족집단의 권력과 존재를 연산 일원에 입식시킨 최초의 종족 경관이었다.

두 번째로 등장한 종족경관은 양천허씨 손자 22世 金國光(1415-1480)의 사당이다. 이 사당 역시 국가로부터 공인된 不遷之位⁴⁾ 사당이다. 김국광은 연산광김으로서는 최초로 정승의 지위에 오른다. 그는 세조 때에 병조판서에 있으면서 이시애의 난⁵⁾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움으로써 지위 승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470년에는 의정부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 올랐으며, 1471년 좌리공신의 호가 내려지고 광산부원군에 봉하여졌다. 그의 死後 조정에서는 불천지위 사당을 내려주었다. 사당은 1483년(성종 13년) 세워졌으며 건립 장소는 광산김씨 근

거지였던 연산 고정리였다. 『성종실록』에는 김국광의 집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門庭이 저자[市]와 같았고 집안이 크게 부유하게 되었으며”⁶⁾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의 경제적 지위가 갖는 단면을 알려주고 있다. 이 때에 즈음해서 적어도 고정리 일원의 소분지는 대부분 광산김씨의 소유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연산 고정리의 광산김씨는 양천허씨 정려를 통해 도덕적 지위와 사회적 입지를 과시한 상태에서 15세기 후반경 김국광의 정계 활동에 터하여 확고한 정치, 경제적 지위에 올라있었음을 볼 수 있다.

양천허씨 정려와 김국광 사당 같은 15세기 말엽까지의 종족 경관은 중앙 정계에서 얻은 권력이나 지위를 연산이라는 지방에 직접 이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이런 면에서 그것은 ‘권력 과시형’ 경관이라 할 수 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혹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방향성을 가진 경관이었음을 뜻한다. 아직 착근 과정에서 생산된 경관이라 해석할 수는 없고, 단순한 권력 이식의 과정에서 나타난 경관이라 볼 수 있다. 지방민들을 위한 ‘施惠·教化型’ 경관은 아니었다. 전자는 어떤 종족집단이 새로운 공간 속으로 침입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한 경관이라 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어떤 영역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 맺기의 과정에서 창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16세기부터 후자에 해당하는 경관들이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해 가는데 기여하도록 의도된 경관들을 말한다. 전자의 경관들이 광산김씨 가문의 연산 세거를 가능하게 한 물리적 정착의 동인이었다면, 후자는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사회적 정착의 동인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광산김씨에게 소위 연산광김이라는 별칭이 붙여진 기원도 그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시기부터 '연산'이라는 지명이 광산김씨의 종족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산광김'을 가능하게 하여 준 그 첫 번째 경관이 26世 金繼輝(1526~1582)가 세운 정회당이었다.

2) '시혜·교화형' 경관 창출

靜會堂⁷⁾은 중앙 정계에만 관여하던 광산김씨가 연산 지방에, 연산의 유생들을 위해 건립한 서당이다. 정회당은 김국광의 5대손 김계휘⁸⁾에 의해 세워졌다. 그 계기는 그가 1557년(명종 12년) 邪論을 조장했다는 죄목으로 삭탈관직과 문외출송을 당한 것⁹⁾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연유에서 연산으로 내려온 김계휘는 연산 부근 고운사 경내에 서당을 건립하였고¹⁰⁾ 그 입구에 정회당이라는 편액을 걸었다. 정회당이 세워진 위치는 현재의 논산시 별곡면 양산리 35번지이다.¹¹⁾ 그가 정회당을 세운 목적은 후학을 양성하고 향촌을 교화하는 것이었다. 정회당은 광산김씨가 건립한 연산 지방 최초의 講學·藏修 장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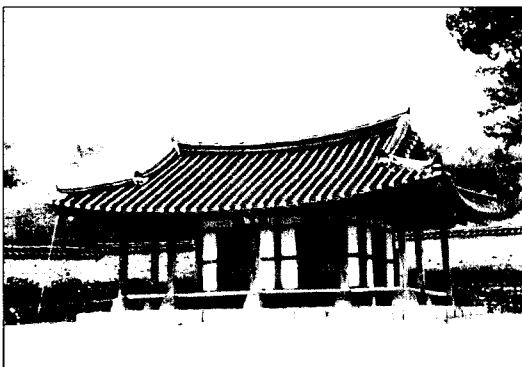


그림 2. 정회당

주: 정회당은 광산김씨의 지역적 착근과 사회관계망의 형성에 기여한 초기의 시혜-교화형 경관으로서 그 영역성은 연산현 일원이었다.

김계휘라는 인물은 이이, 정철, 박순, 윤두수, 성혼 등 당시 조선 유학의 선도자들과 生死의 사귀를 맺고 있었다.¹²⁾ 또한 이이와 성혼은 송익필과 道義之交를 맺었으므로, 사실상 김계휘는 송익필과도 돈독한 사이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그는 학문적 수준과 정통성에 있어서 당대 최고의 반열에 들어 있었고, 그의 학문과 학통이 그대로 정회당이라는 경관을 통하여 연산 일대의 유생들에게 전파되었던 것이다.

연산 부근의 유생들은 김계휘의 성리학을 전수받기 위하여 정회당에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김계휘의 성리학'이라 한 것은 이 즈음부터 조선의 성리학파가 나뉘어지고 있었음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김계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이, 정철, 박순, 윤두수, 성혼, 송익필 등과 절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성리학적 견해에 있어서도 그들과 공감하는 바가 많았다. 따라서, 김계휘의 성리학은 많은 점에서 율곡 이이에게서 비롯되는 소위 '기호학파의 성리학'과 동일시 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김계휘의 아들인 김장생이 이이와 송익필의 수제자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뒷날 율곡 이이를 잇는 기호학파의 嫡傳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연산 일원의 유생들은 그러한 '김계휘의 성리학'을 전수받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정회당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의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물론 정회당이 고운사 부지에 세워졌으므로 사찰 부속 토지 및 정회당을 운영하는 有司들로부터 운영을 위한 비용의 최소요구치는 충족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김계휘의 정치, 경제적 지위와 광산김씨의 재력이 뒷받침되었던 것 같다. '김계휘가 정계에 재등용된 후에도 정회당에 쌀 300석과 藏書를 조달해 주었다'는 사실¹³⁾에서 그 점을 알 수 있다. 김계휘는 1557년부터 1562년(명종 12년) 이조 정랑으로서 중앙 관직에 재등용될 때까지 약 6년 동안 정회당에서 지방 유생들에게 직접 강학하였다. 김계휘의 이같은 지방 활동과 그가 세운 정회당이 바로 뒷날 호서사람과의 사상적 맹아이자 지리적 기원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계보의식의 탄생과 영역성 조형

정회당은 김계휘 사후에도 아들 김장생(1548~

1631)과 손자 김집(1574~1656)에게로 이어져 계속 운영되었다. 정회당 유생들은 천거를 통해 입속한 사람들로써 연산현의 몇몇 유력 가문에 의해 운영되는 매우 배타적인 서당이였다.¹⁴⁾ 『靜會堂誌』 「立議」條에 서술된 바 '입학자는 初試에 합격했거나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자이어야 한다', '他官人 이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3인을 넘지 않는다'와 같은 추천제 입학 제도 및 입학자를 지역적으로 제한하는 규약에서 그 점을 추측할 수 있다. 이 곳을 출입하는 유생들의 거주지 한계가 대체로 연산현 정도의 공간 범위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정회당 이후에 연산 지방에는 養性堂이라는 새로운 서당이 지어진다. 양성당이 지어진 곳은 원래 雅閑亭이라는 누정이 있었던 장소였다. 아한정은 세조 때에 활동했던 최칭강¹⁵⁾의 別業이었는데, 김장생의 백조부인 金錫(1541~1611)이 구입하면서¹⁶⁾ 광산김씨 가문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나, 아한정은 임진왜란 중에 소실되었고 건물 터만 남게 되었다. 바로 이 자리에 1602년 김계휘의 아들 김장생은 양성당을 건립하게 된다.

양성당¹⁷⁾ 역시 지방 유생들을 위한 일종의 강학 장소로서 중앙 정계에서 활동하던 광산김씨 김장생이 연산으로 낙향하면서 세운 것이다. 그가 낙향한 이유는 당시 복인의 영수였던 정인홍¹⁸⁾이 대사헌[종2품]에 오르면서 서인에 대한 탄핵을 가속화했다는 점에 있었다. 주목할 것은 양성당의 건립

배경 중에 복인에 의한 서인 탄핵이 있었다는 점이다. 양성당은 당파적 소속이 분명했던 인물에 의해 세워진 것이다. 이는 지역적 학연 계보의 탄생을 함축한다. 즉, 양성당은 서인 계열의 봉당적 성격을 능후하게 반영한 경관으로서 이 장소에 출입한 유생들의 당파적 성격을 조정하며 재생산하는 기능을 하였다.

양성당이 갖는 이같은 봉당적 성격은 중앙 정계의 당파별 역학 관계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양성당이 당초 순수한 서당으로서 지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 효과는 그 이상의 권력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김계휘의 정회당이 타의적 낙향을 계기로 세워진 어떤 면에서 소극적인 성격의 것이던 반해서, 김장생의 양성당은 자발적인 것이었고 그만큼 존립 지속성과 적극적 후학 양성의 의지를 담은 경관이였다. 그 결과, 정회당의 유생 분포가 연산현을 한계로 하였던 것에 비해 양성당의 그것은 훨씬 확대되었다. 그것은 김장생의 학문적 권위와 先代의 정치적 인맥, 그리고 김장생의 자발적 의지가 배경으로 작용하여 가능했던 것이다.

김장생은 어려서부터 율곡 이이와 구봉 송익필이라는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 권위자에게서 수업하였는데, 물론 그것은 그의 부친인 김계휘의 교우 관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김장생은 기호학파의 정통을 잇게 되는데 그가 연산에 양성당이라는 편액을 내걸고 우거함으로써 이 때



그림 3. 양성당(좌측은 현액)

주: 양성당은 정회당의 경우와 달리 서인 중심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면서 후학 양성의 의지를 담은 경관이였고 따라서 학문적 계보의식의 탄생을 자극하였다. 양성당에 기반한 김장생의 성리학은 점차 기호사립의 거점으로서의 지역적 정초를 확고히할 수 있었다. 이것은 15세기 초부터 광산김씨의 근거지로서 꾸준히 다져진 충청도 연산 지방에서의 제척기반, 중앙 정계에서의 정치적 권력, 그리고 성리학적 정통성을 잇는 학문적 계보라는 세 인자가 조합된 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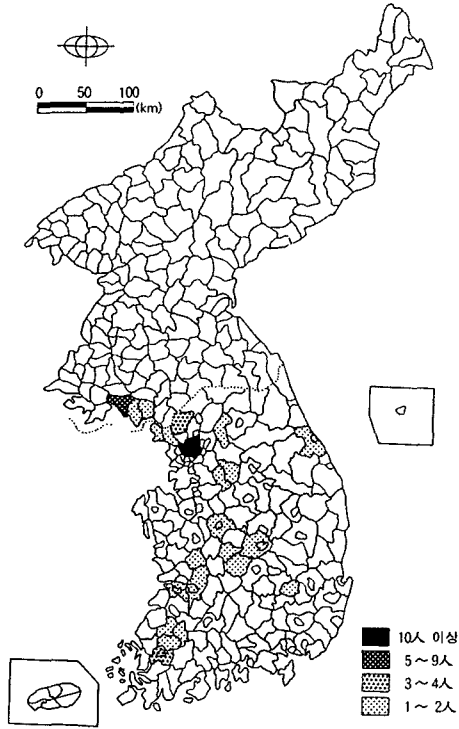


그림 4. 李珣의 문인 분포에 반영된 기호사립파의 세력권

부터 연산은 기호학파의 핵심지로 부상하게 된다. 따라서 김장생의 성리학은 스승인 울곡 이이의 성리학에 비해 지역적 정초가 분명해질 수 있었다.

기호사립파의 사상적 연원인 울곡 이이의 경우, 출생지는 강원도 강릉이면서 어려서는 금강산에 들어가 불교를 공부했고 장성해서 주된 거주지는 한양 인근이었다. 또한 先塋은 경기도 파주였으며 황해도 해주의 野頭村에서 학문을 닦는 등 지역적 연고가 뚜렷치 않았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의 활동 지역은 다양했고 행동 반경이 광범위했다고 할 수 있지만, 역으로 그의 문하생의 분포 지역은 강원, 황해, 경기, 충청, 전라 등에 영역적 중심성이 없이 산포하는 결과로 귀착되었다.¹⁹⁾ 굳이 지역권을 말한다면 기호 지방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때의 기호 지방이란 실질 지역이라기보다는 영남 지방과 대비되는 용어로서 非嶺南圈이라는 의미를 가짐에 불과하다. 울곡으로 대표되는 기호사립파에 있어 기호라는 명칭은 지리적 중심성이 매우 약한 擬似空間的(pseudo-spatial) 개념이었던 것이다(그

림 4 참조).

그에 비하여, 김장생은 비록 한양에서 성장한 이력이 있을지라도 그 곳의 생활에 염증을 느껴²⁰⁾ 선영이 위치한 연산 지방에 낙향하곤 하였다. 따라서 연산 지방을 비롯한 호서 지방의 유생들은 김장생의 성리학으로부터 지속적인 학문적 수혈을 받을 수 있었다. 학문적 계보, 즉 학파가 형성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었던 것인데, 그것은 당시 한양과 충청도 연산 사이의 지리적 격리도가 정치적 진출과 퇴거에 동시에 적절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한양과의 격리 정도에 있어 중앙으로부터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정계의 상황이 호전되면 수시로 나아갈 수 있는 거리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지상의 특성은 내포 지방을 포함한 조선시대 충청도 곳곳의 특징이기도 한데 연산이나 회덕 지방 역시 그 중에 속했다. 광산김씨의 생태적 근거지가 충청도가 아니었고 김장생의 寓居地가 연산 지방이 아니었다면, 이 지방에 근거하여 조선 후기까지 지속된 호서사립파의 정계 장악과 영역적 핵심부 형성이 애초부터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김계희의 정회당이 연산현에 국한되었던 것과는 달리, 김장생의 양성당은 기호 지방 전체에 문을 열고 있었다. 양성당의 영역성이 기호 지방 전체에 미쳤다는 말인데 이 곳을 출입한 사람들의 명단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의 출입자 명단을 정확히 확인한다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적어도 현재 양성당에 남아있는 詩文의 저자들은 이 곳을 드나들었던 사람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현재 전하는 시문은 김상용, 정엽, 조익, 소광진, 송간, 심광새, 홍천경, 신희, 황혁, 임숙영, 권진기, 김상헌, 이정구, 장유, 정홍명, 김지남(2편), 양경우 등이 지은 총 18편이고 지어진 연대는 1601년부터 1630년까지 걸친다. 양성당이 건립될 즈음부터 김장생이 타계한 1631년 이전까지에 해당한다.

저자들은 김장생과 동문수학한 친구이거나 門人에 해당하며 대체로 이들의 거주지는 기호 지역 전역에 널리 분포한다. 이들이 양성당에서 강론과 시를 주고 받았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양성당은 사실상 기호사람들의 의기투합장이나 다름 없었다. 다만, 많지 않은 이들의 수나 김장생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당시 양성당이 갖는 기호사립 결집



그림 5. 임리정

주: 양성당이 호서사림파의 정치적 성격을 내포하는 경관이었다면 임리정은 배향인물을 명시하고 계보의식을 드러내는 상징경관이었다. 임리정과 이에 부설된 죽림서원은 김장생의 학문적 연원을 알려주는 선현 배향을 통해서 출입한 유생들에게 계보의식을 확립해주었다.

장으로서의 구심력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곳에 출입한 사람들이 산포 패턴의 點的 분포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 영역성을 기호사림 전체로 面的 일반화를 시도하기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당이 가졌던 학연 계보에 기초한 지역적 거점으로서의 의미는 주목할만 하다.

이와 같이 김장생의 성리학이 기호사림의 거점으로서의 지역적 색깔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은 15세기 초부터 광산김씨의 근거지로서 꾸준히 다져진 충청도 연산 지방에서의 재지적 기반, 중앙정계에서의 정치적 권력, 그리고 성리학적 정통성을 잇는 학문적 계보라는 세 인자가 조합된 결과였다. 여기서 김장생의 양성당은 이 세 인자들을 융합시키는 촉매 장소로 기능했다. 그 결과 충청도 연산의 김장생의 성리학은 비영남권으로서의 기호성리학이 아닌 실질적 거점으로서의 호서 성리학, 즉 호서사림파의 사상적, 지리적 기원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부터 기호사림파의 主脈은 호서사림파로 대변되면서 연산 지방을 중심으로 그 지역적 연고를 분명히 하게 되었으며, 호서사림파에서 '호서'는 더 이상 비영남권을 대신하는 '기호'라는 의미가 아닌, 표현 그대로 '호서 지방'에 근거지를 둬 '을' 뜻하는 내실적 공간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김장생은 1626년(인조 4년) 문인들의 권유

로 강경 지방에 강학 장소인 黃山亭을 세우고 그 옆에 祠宇를 세워 자신의 스승인 율곡 이이와 성혼을 배향한다.²¹⁾ 명백히 기호사림과 계열에서 연원하는 서원임을 상징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 위치는 현재의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96번지였다. 황산정은 뒤에 臨履亭²²⁾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사우를 세운다는 것은 그 건립 주체의 학문적 계보를 밝힘으로써 상징경관 생산을 통해 학파적 성격을 가시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임리정 옆에 세워진 사우를 강경의 황산에 세워졌다는 이유에서 황산서원이라 불리게 되는데, 1665년(현종 6년)에 '竹林'이라는 사액을 받음으로써²³⁾ 죽림서원으로 개칭되었다.

임리정을 강학소로 간주하고 그 옆에 세워진 사우를 先賢祭享의 장소로 본다면, 이 경관은 서원으로서의 기본 기능을 갖추는 것으로서 162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연산 지방 최초의 서원이 된다. 이전의 양성당이 호서사림파의 지역성과 봉당적 성향을 '內包하는' 경관이었다면, 임리정과 죽림서원은 그러한 상징성을 가시화함으로써 장소의 영역성을 '드러내는' 경관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임리정과 죽림서원은 김장생의 학문적 연원을 알려주는 선현 배향을 통해서 출입한 유생들에게 계보의식의 탄생을 자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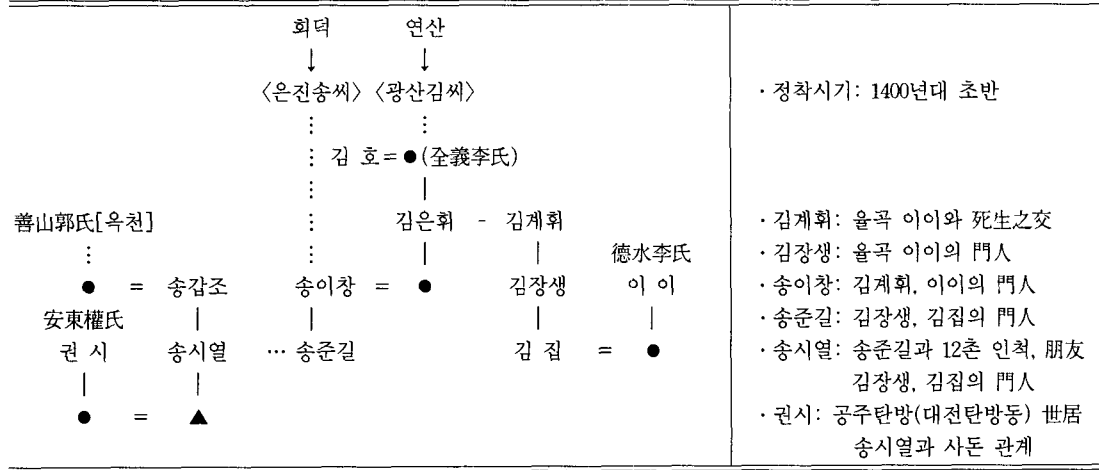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정회당→양성당→임리정'으로 이어지는 상징 경관의 생산과정에서 연산 지방에는 '기호계 성리학의 전파→서인 계열의 봉당적 성향→계보의식의 탄생·가시화'가 이루어졌고, 각 경관의 공간적 영향권을 의미하는 영역성의 차원에서는 '연산현→범기호지방[點的 分布]→호서지방의 핵심 영역화[面的 패턴]'의 방향성을 보였다. 그리하여 임리정이 건립된 1626년경부터는 광산김씨에 의해 확산된 연산 지방의 성리학에 계보의식이 분명해졌고, 양성당과 임리정 같은 경관은 그러한 계보의식의 재생산을 가능케 하면서 연산 지방을 이들의 영역적 핵심 지역으로 만들어갔다.

3. 사회적 관계망의 확장과 영역성 확대

1) 사회적 관계망 확장

전술했듯이 사계 김장생(1548~1631)은 율곡 이

표 1. 연산 광산김씨와 회덕 은진송씨 간의 사회적 관계망



자료 출처: 『光山金氏族譜』, 『恩津宋氏族譜』, 『國朝人物考』

이와 구봉 송익필에게서 受學하였다. 그 계기는 부친인 김계휘의 봉우관계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효과는 김장생의 학연 계보와 혈연 관계에 매우 지대한 것이었다. 학연 계보 및 혈연 관계의 측면에서 제일 먼저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김장생과 송이창(1561~1627)의 만남이다. 그것은 연산의 광산김씨와 회덕의 은진송씨가 학맥과 혈연을 통해 중층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 본격적으로 광산김씨의 '사회적' 관계망이 '공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발단이었기 때문이다(표 1 참조).

송이창은 은진송씨 회덕 입향조인 송명희의 8대 손이다. 회덕의 은진송씨 가문은 입향조 송명희의 손자 송유(1309~1446)가 현달하고 그 후대에 과거 급제자를 계속 배출하면서 대략 1430년대이래 회덕에서 가장 유력한 가문이 되었다. 이 때에 은진송씨는 중앙 정계에 진출하면서 당대 유명 인사들과 접하게 되는데 그 중에 광산김씨 김계휘가 있었다. 더구나 김계휘는 충청도 연산에 근거지를 두면서 수시로 낙향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두 가문 사이의 접촉 가능성은 그 만큼 높았다. 연산과 회덕은 물리적 거리에 있어서도 도보를 통해 하루에 왕복 가능할 정도의 가까운 거리이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지위의 유사성과 두 근거지 간의 지리적 근접성은 양 가문이 혈연적, 학문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사회·정치적 지위의 유사성이 통혼 관계의 중요한 조건 중 하

나였던 조선초 양반사회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지리적 인접 지역에 자신들과 유사한 지위의 종족집단이 거주한다는 점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있어 이상적 여건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송이창은 김계휘의 문하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는 처음에 김계휘의 문하생이었고 김계휘의 인맥을 통해서 나중에는 울곡 이이, 구봉 송익필의 문인이 된다.²⁴⁾ 송이창은 김계휘의 친형 김은휘²⁵⁾의 사위가 됨으로써²⁶⁾ 학연뿐만 아니라 혈연상으로도 연산의 광산김씨와 연결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송이창은 김계휘의 아들 김장생을 만났고, 그 뒤 두 사람이 同門으로서 함께 이이와 송익필을 스승으로 섬기게 된다. 또한 김장생은 정계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나 연산에 은거할 때에는 수시로 송이창과 교우하였다.²⁷⁾ 지리적 인접성을 토대로 그 위에 학문 계보와 혈연 관계가 중첩됨으로써 송이창으로 대표되는 은진송씨와 김장생의 광산김씨 사이의 사회적 관계망은 여타 종족집단과 인접 공간을 향해 확대, 심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광산김씨 김계휘의 문하에 은진송씨 송이창이 들어오게 되고 송이창은 김계휘의 아들인 김장생을 만나는 과정에서 두 종족집단 간의 사회적 관계는 혈연과 학연으로 채워질 수 있었다. 그 뒤, 송이창의 아들 송준길(1606~1672)이 김장생의 문하생이 되고, 다시 송준길을 통하여 그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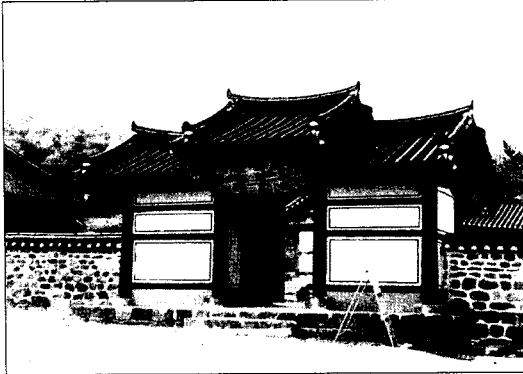


그림 6. 돈암서원: 현액(좌)과 경내 전경(우)

주: 임리정을 통해서 기호사림 계열의 계보의식이 가시화되었다면, 돈암서원은 연산 출신의 김장생을 배향함으로써 학문적 계보의 기원 인물을 외부 공간에 둔 것이 아니라 이 지방 '내에서' 찾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 후 송준길과 송시열을 추배함으로써 '김장생 김집 송준길·송시열'로 이어지는 17세기 호서사림파의 적전 계보를 망라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광산김씨와 은진송씨 간의 사회관계망 결합, 연산과 회덕의 공간적 통합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돈암서원의 영역적 스케일과 경관적 상징성이 여기에 있다. 이 지방이 단순히 기호사림의 한 지맥이 아니라 호서사림의 연원 지역임을 부각시킨 상징경관이다.

붕우였던 송시열(1607~1689)까지 김장생의 문하로 들어오게 된다. 나아가, 송시열과 송준길은 스승 김장생이 타계한 후 그의 아들 김집(1574~1656)을 師事하고 후에는 김장생과 김집의 자손들이 다시 송준길과 송시열의 제자가 됨으로써,²⁸⁾ 두 종족집단 간의 관계는 선적 연결을 넘어 다면적 결합 양상을 보이게 된다. 더욱이 두 종족집단은 각각 연산과 회덕에서 가장 유력한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들의 결합은 종족집단 차원의 단순한 학연, 혈연적 연대를 초월하는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해서 각 종족집단별로 구성해 왔던 두 개의 사회관계망이 서로 결합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장된 사회관계망에는 상당한 수의 차하위 종족집단들이 포섭되었을 것임을 뜻한다. 동시에 연산과 회덕의 영역적 통합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공간적으로 국지적(local) 규모를 벗어나 지역적 스케일에서의 영역성 확대와 단일권의 지역사회 형성을 함의한다. 그러나 그 시초 단계에서 공간적 중심성은 연산 지방에 있었고 그 속에서의 사회적 비중은 광산김씨에게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율곡 이이에게서 시작된 호서사림파의 嫡傳 계보가 연산의 김장생, 김집에게로 이어졌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의 계보의식을 상징하는 경관으로서 돈암

서원이 연산 지방에 건립되었다는 사실이다.

돈암서원은 그 동안 연산 지방에 세워진 정회당, 양성당, 임리정에 이어 김장생이 타계한 3년 뒤인 1634년(인조 12년)에 건립된다.²⁹⁾ 그리고 1660년에 사액되었다. 전술했던 임리정을 통해서 기호사림 계열의 계보의식이 가시화되었다면, 돈암서원은 연산 출신의 김장생을 배향함으로써 이 지방이 단순히 기호사림의 한 지맥이 아니라 호서사림의 연원 지역임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

2) 돈암서원 건립과 영역성의 확대

돈암서원이 건립된 이후부터는 서원과 사우에 배향되는 인물이 타지방 기원이 아닌 바로 이 지방 출신의 인물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계보의 기원 인물을 외부 공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지방 '내에서' 찾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 뒤 1658년(효종 9년)에는 김집을 追配함으로써 그 연원 지역의 핵심 종족집단이 광산김씨라는 점을, 그리고 1688년과 1695년에는 각각 송준길과 송시열을 추배함으로써 '김장생→김집→송준길·송시열'로 이어지는 17세기 호서사림파의 적전 계보를 망라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광산김씨와 은진송씨 간의 사회관계망 결합, 연산과 회덕의 공간적 통합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돈암서원의 영역적 스케일과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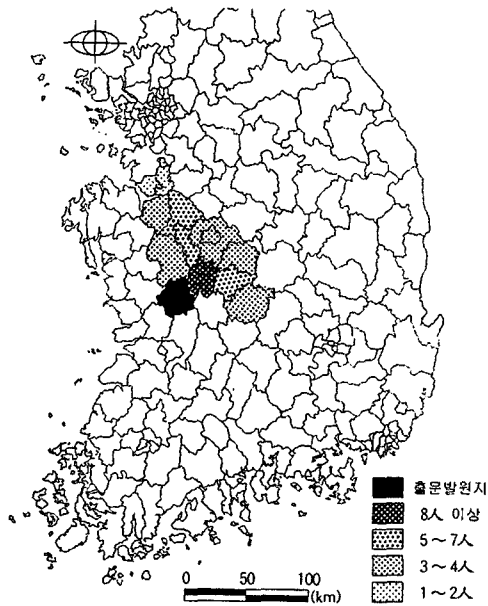


그림 7. 돈암서원 창건시의 열읍유사 분포를 통해서 본 지역사회 영역성

관적 상징성이 여기에 있다.

표상으로서 돈암서원이 내포하는 이러한 공간적 영역성은 창건시 각종 직책으로 동참했던 인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다. 송시열이 撰한 돈암서원 院庭碑文에 의하면, “사계 문원공 김장생이 1631년(승정 신미년) 8월에 溪上³⁰⁾에서 돌아가시어 이미 장사하였고, 門人弟子들이 그리운 생각을 붙일 곳 없은 즉, 계상의 옛 거주지 왼쪽에 사우를 창립하고...”³¹⁾라 쓰고 있어 돈암서원이 김장생의 거주지였던 장소에 세워졌음을 말해준다. 그 곳은 생전에 그가 제자들에게 강학하던 양성당이 있었던 장소를 말한다. 조선시기 어떤 서원을 창건할 경우 두 주춧돌이 나서는데, 하나는 발기문을 각 지역에 보내는 出文有司이고 다른 하나는 각 지역에 거주하면서 발기문의 의도에 협조하는 列邑有司이다.³²⁾ 특히, 열읍유사들은 각 지역으로부터 주로 재정 조달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인원이 많은 지역일수록 재원 조달의 가능성과 규모가 컸을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지역별 열읍유사의 인원을 보면, 회덕이 7명으로서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고, 7명 중 4명이 은진송씨로 되어 있

어서, 지역적으로는 회덕현에서 그리고 종족집단으로 보면 은진송씨 가문에서 재원 조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은진송씨는 출문유사에도 2인이 등록되어 있어,³³⁾ 돈암서원의 창건 발기와 재정 지원의 양면에서 선봉에 있었던 종족집단이라 볼 수 있다. 인원 수가 적어 단언하기엔 어렵지만, 지역별 열읍유사를 종족집단의 측면에서 정리하면 광산김씨와 은진송씨 외에 주목되는 성씨로 출문유사에 2인이 가담한 옥천의 선산곽씨, 전의의 전의이씨가 주목된다(註 32)의 열읍유사 명단 참고). 특히 옥천의 선산곽씨는 송시열의 外家로서 그리고 옥천은 송시열의 출생지로서의 연고가 있으며, 전의이씨는 김장생의 조부 김호(1505~1561)의 配匹 성씨이고 김장생의 문인에도 9인³⁴⁾이 올라 있는 등 광산김씨와 일찍부터 연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한편, 출문유사에 있어서는 김동준, 김자건, 김수남, 김정망, 김근보 등 예상대로 연산의 광산김씨가 가장 많은 인원을 내고 있고, 그 외에 윤전, 윤운거 등 니산의 파평윤씨,³⁵⁾ 그리고 전술한 송시열, 송준길로 대표되는 회덕의 은진송씨가 대표적인 성씨로 나타난다. 요컨대 돈암서원 창건시의 영역성을 열읍유사의 빈도 분포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에서 빈도 분포가 높은 지역일수록 김장생을 연원으로 하면서 돈암서원에 상징적 가치를 부여하는 지리적 범위, 즉 돈암서원과 김장생을 구심점에 두는 일정 범위의 영역성을 확인할 수 있다. 1630년대의 시점에서, 연산과 회덕을 핵심지역으로 하면서 면적으로 확대된 지역사회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반영하는 사실인데, 그 중심의 성씨로는 광산김씨와 은진송씨를 필두로 전의이씨, 파평윤씨를 들 수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연산을 핵심지역으로 하면서 회덕이 제2차 중심으로 부각되는 패턴을 보인다. 연산과 회덕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영역성은 김장생 문하에서 공부한 문인들의 지역별 분포를 확인함으로써 더욱 명료하게 포착할 수 있다.

김장생의 문인은 『沙溪全書』의 「門人錄」에 기록되어 있는데 필자는 그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榜目列記』의 「儒家淵源錄」에서 명단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문인의 총인원을 268명으로 정리하였고, 다음 작업으로 이들의 거주지 혹은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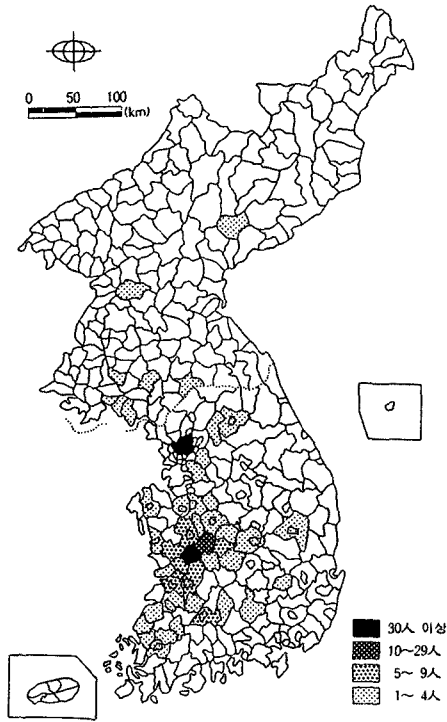


그림 8. 김장생 문인의 분포 패턴에 반영된 영역성
 주: 連山-懷德을 핵심부로 하고 주변 지역을 향해 漸減하는 공간 구조 및 영역성을 확인할 수 있다.

거지를 파악하였다. 각 인물들의 本貫에 관한 기록은 앞의 자료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실제 거주지에 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본인은 김장생의 문인들이 당시 각 지방에서 선구적 학자였다는 점과, 따라서 그들 중 많은 수가 적어도 생원·진사시에 응시 혹은 합격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조선 시기 생원·진사 합격자 명부인 『司馬榜目』의 정보를 참고하기로 하였다. 특히, 조선왕조는 생원·진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응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사마방목』에 기록된 거주지 항목은 그 만큼 믿을만하다고 판단하였다. 수험자들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자신의 성명, 본관, 거주지, 父의 성명과 관직, 형제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제출해야 했고, 『사마방목』에는 합격자에 한하여 이러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마방목』의 신상 정보

를 이용하게 되면, 최소한 합격자의 경우는 물론이고 불합격자라 하더라도 부친이나 형제의 성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험자의 거주지 추적이 가능하게 된다. 때문에, 각 문인별 거주지 확인 정도를 최대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거주지가 확인된 인원은 총 209이었으며 전체의 약 78.0%에 해당한다. 이를 지도화하면 그림 8과 같다.

그림 8에서 지역별로 볼 때 30인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도읍이었던 한양과 충청도 연산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패턴에서 한양과 연산이 갖는 의미는 서로 상이하다. 한양은 조선의 정치 중심지로서 전국 각지의 유생들이 집중해 있던 장소이다. 따라서 한양의 경우는 지방에 비해 학문에 몰두한 정치지방생의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곳이었다는 점, 그리고 한양의 유생들을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 학파의 범주 속에 포섭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한양은 율곡 이이의 문인 분포에서도 최고 빈도를 기록하고 있듯이 김장생의 문인 분포에서도 역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라 해석되며, 추측컨대 영남사립파 계열의 문인 분포에 있어서도 최고 빈도를 나타내는 지역일 것이다. 한양을 이 분포 패턴의 핵심 지역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한양 주변부에 점감하는 차하위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그러한 판단의 이유가 된다.

다만, 한양은 연산과 물리적으로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격리되어 있지만 사회, 정치적으로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었으므로 연산과의 관련성 속에서 한양이 갖는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두 지역은 사회, 정치적 연계 속에서 상호재생산의 관계를 유지했으며, 학문적 계보망은 그러한 상생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권력의 흐름망으로서 기능하였다. 예를 들면, 연산·회덕권의 유생들은 과거라는 공식적 시험을 거치지 않고서도 薦擧를 통해 중앙 관직에 등용된 사례가 수 없이 많았는데,³⁶⁾ 이 때 천거의 배경이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학문적 계보망이었던 것이다. 또한 중앙의 정쟁에서 실패한 경우 이들은 연산·회덕권과 같은 지방 근거지에 낙향하여 재기의 기회를 기다렸다는 점을 볼 때, 정쟁에서의 실패는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을 뿐 정계로부터의 영원한 도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요컨대, 연산·회덕권은 한양의

배후지이자 근거지로서 존재했고, 한양은 이 지방에서 닦은 학문 사상을 정치에 적용하고 계보적 정통성을 설파하는 무대였다. 그리고, 학문적 계보 의식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망은 이 두 지역 간의 연결 관계를 이해하는데 충분조건으로 작용한다.

그림 8에서 연산 지방을 중심으로 한 문인 분포 패턴의 특징을 살펴보면, 핵심 지역은 연산이고, 회덕이 제2차적 중심 지역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연산과 회덕을 중심에 두고 주변으로 갈수록 거리에 따라 문인 분포의 빈도가 점감하고 있다. 제3차 중심 지역으로는 부여, 공주, 옥천과 여산, 전주, 김제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들은 차상위 핵심 지역인 연산과 회덕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들 외의 3차 중심 지역은 남원에도 나타나는데, 영역성으로서의 의미는 있겠으나 공간적으로 격리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지역사회로서 인식하기엔 무리가 있다. 담양, 광주, 나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다.

스케일을 넓혀 전체적으로 보면 호서지방과 호남지방에서 분포 밀도가 높으므로 이 일대에서 영역성이 상대적으로 농후하다고 볼 수 있고, 경기와 황해도 지방은 이 영역성에 가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장생의 문인 분포는 경상도와 평안도, 심지어 함경도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전술한 호서·호남 지역과 비교하면 이들 지역에서의 분포 빈도는 매우 미미한 편이다. 이 분포 패턴에서 특기할 점은 광범위한 분포와는 대조적으로 호서 지방의 경우 당진, 예산, 홍주, 청양 등 소위 내포 지방과 충북 북부의 충주, 음성, 괴산, 제천, 단양에서는 문인이 한명도 배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내막은 자세한 고찰을 필요로 하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분수계, 지형 등 자연지리적 특질에 있어서 그 두 지역이 연산·회덕권과는 구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들 지역에서 주류를 이루는 학문적 계보 의식과 사회, 정치적 성향 역시 연산·회덕권과는 매우 상이하하다. 이러한 지역적 차별성은 전술했던 바 돈암서원 건립시 참여한 열읍유사 분포 패턴에서 드러난 공간적 분할상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청도 연산·회덕을 중심으로 돈암서원과 김장생에 기원을 두고 전개된 일정 범위의 세력권이 존재하였다. 이 세력권

이란 연산의 광산김씨와 회덕의 은진송씨에 뿌리를 두고 성장한 호서사립파의 영역성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 영역의 특징 중 하나는 핵심지역-준핵심지역-주변지역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공간구조는 사회적으로 생산된 것이고 지리적으로 매우 안정된 것이다. 더욱이 이 공간구조의 핵심지역은 계보의식 및 정치적 연망을 매개로 하여 국가 중심지 한양과 정치,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자발적 자기 재생산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장기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 이해된다. 사실상 호서사립파는 조선중기부터 조선말기까지 이 지역을 근거지로 하면서 중앙 정계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다. 돈암서원의 건립 시기와 김장생의 타계 시점을 염두에 들 때 이 같은 공간구조 및 영역성이 확립된 시기는 적어도 17세기 중반 이전으로 소급되며, 오늘날까지 이 지방의 지역 정체성과 사회·공간적 의미를 구성하면서 중요한 층위로 존속하고 있다.

4. 맺음말

연산과 회덕 지방에 있어서 16~17세기의 시기는 경관 생산 및 사회적 관계망 확장 단계로 대변될 수 있을 만큼 사회적으로 의도된 다양한 상징 경관이 생산되던 시기였다. 15세기를 지나면서 이들 지역에서 수위 종족집단으로 부상한 광산김씨와 은진송씨는 권력 과시형 경관을 지역에 이식하면서 중앙에서 획득한 자신들의 권력을 지방에 과시하였고, 16세기부터는 지방민들을 위한 시혜·교화형 경관을 생산하면서 지역사회에 완전히 착근할 수 있었다. 광산김씨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는 첫 번째 경관이 정회당이었고, 다음으로 양성당, 임리정이 생산되었다. 이러한 경관 창출은 순차적인 영역성 확대를 유도하였고, 영역성에 내포된 초기의 의사공간적 성격은 보다 분명한 공간적 정초를 확립하여갔다.

이러한 경관 생산을 통해서 학문적 계보의식이 탄생하였고 그러한 계보의식은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향해서 확대, 심화될 수 있었다. 또 한가지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은 시혜·교화형 경관이 매개가 되어 연산의 광산김씨와 회덕의 은진송씨가 사

회적으로 결합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두 종족집단 간의 연대는 선적 연결을 넘어 학연, 혈연, 지연적 유대로 이어져 다면적 결합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들의 사회적 결합은 곧 공간적 영역성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국지적’ 단위의 수위 종족집단이 서로 결합함으로써 ‘지역적’ 규모의 지역사회가 형성되었음을 말한다. 한편, 이 시기를 거치면서 두 종족집단에게는 본관이 아닌 실제 거주지가 이들의 장소 정체성을 표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광산’ 김씨는 ‘연산’ 광김으로, ‘은진’ 송씨는 ‘회덕’ 은송(혹은 회송)으로 정상화되었다. 이들의 존재와 정체성이 자신들의 막연한 기원 장소가 아닌 현재적 점유 장소를 근거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산과 회덕의 공간적 통합과 영역성은 광산김씨와 은진송씨가 주체가 된 지역화과정의 산물이었다. 이 지역사회의 사회·공간적 특성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광산김씨와 은진송씨를 중심으로 한 사회관계망에 초점을 두면서 경관 생산과 계보의식의 탄생이라는 관점에서 투사하는 방법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으로 생산된 이 공간성(spatiality)의 탄생 과정에는 학연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통혼을 통한 혈연 관계, 근거지의 지리적 인접성이라는 지연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연산·회덕권을 하나의 동일한 지역사회로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 지역사회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1세대 인물들은 김장생과 김집으로 드러나는 광산김씨였지만, 돈암서원 건립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추후 차세대는 은진송씨 종족집단에 의해 주도될 것임을 암시받을 수 있었다.

註

- 1) 연구 지역이 갖는 역사적, 지리적 함의에 관해서는 이전의 논문(전중환, 2002b)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생략함.
- 2) 연산의 광산김씨에 대한 별칭. cf. 이하 회덕은송은 회덕의 은진송씨에 대한 별칭임.
- 3) ‘連山の 及第 金問의 처는 나이 20세에 지아버가 죽었는데 무덤 곁에 여막을 치고 능히 3년을 마쳤으며, ... 임금이 명하여 ... 김문의 처 許氏 ... 등에게는 그 마을에 旒門을 세워 포상하고 그 집의 요역을 면제하게 하고...’(『世宗實錄』 세종 2년 1월 21일).
- 4) 조선시기에 있어서 나라에 특별한 공훈이 있었던 인물

- 이 주한 경우, 중앙 조정에 의해 그를 영원히 사당에 모셔 제향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된 神位를 말한다.
- 5) 李施愛(?~1467)는 본관이 吉州로서 그의 집안은 대대로 함경도 길주에 거주하던 지방 호족이었다. 지방 호족으로서 그는 세조가 추진한 강력한 왕권 확립과 중앙집권화의 시책에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었고, 결국 1467년 함경도 일대를 장악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시애의 난이 발발하였을 때 金國光은 병조판서의 지위에 있으면서 반란을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된다.
 - 6) 『成宗實錄』 성종 11년 11월 11일.
 - 7) 돈암서원 경내에 복원되어 있음.
 - 8) 김계휘는 1549년(명종 4년) 9월 式年試에서 乙科에 합격한 후 관직이 예조참판에 이른 인물이다(『明宗實錄』 명종 4년 1월 20일). 특히 그는 국토의 인문지리에 관심을 보여 당시 조선의 산천, 마을, 도로, 성지 등의 형세와 농작물 생산 현황, 각 지방의 전통, 연혁, 씨족 원류 등을 파악하여 기록을 남겼다(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國祖人物考』).
 - 9) ‘兩司가 아뢰기를, ‘김홍도는 사사로이 김규와 어울려 邪論을 주장하여 士習을 오도했으니 ... 이귀수와 김계휘도 서로 빌붙어 맞장구 쳐서 弊勢를 도왔으니 파직만 해서 안됩니다. 아울러 관직을 삭탈하고 門外黜送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明宗實錄』 명종 12년 6월 10일).
 - 10) 조선초기에는 儒敎的 教育機關인 서당과 서원을 佛敎 寺刹 터에 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조선왕조는 抑佛 政策을 추진하면서 혁파 대상이었던 寺院이나 廢寺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장소는 기존의 시설과 대지를 재활용한다는 경제적 이점뿐만 아니라 역불승유라는 새로운 조선왕조의 정치철학과도 합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서당이나 서원같은 유교적 교육기관이 입지하기에 매우 용이하였다. 立地의 측면에서는 지리적 장기지속을 함의하면서도 경관의 상징성에 있어서는 시간적 단절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찰 입지를 유교적 교육기관의 입지로 대체하려했던 것과 관련된 기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홍문관 직제학 송질 등이 성종 임금에게 謝恩하기를, ‘... 융성한 사업을 유지하여 지켜 이룩하고 文[성리학]을 숭상하여 교화를 일으키시는 전하를 만나 ... 寺刹을 폐하고 (그 자리에) 書院을 세우며 훌륭한 편액을 내리고 아름다운 잔치를 베풀어서 ...’ 하였다.”(『成宗實錄』 성종 24년 5월 13일): “行副司果 魚得江이 상소하였는데, ‘신은 생각하건대 ... 충청도·강원도·전라도의 중앙과 경상 좌우도에 각기 한 寺刹을 얻어서, 생원이나 진사를 막론하고 도내의 名儒들을 불러 모아 ... 독서하게 하는 것을 연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中宗實錄』 중종 37년 7월 27일). 이 외에 고려의 사찰 터가 조선시기의 서원 입지 장소로서 선호되었음을 주장하는 논문들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참고: 이수환, 1984,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II),” 대구사학, 제26집, 대구사학회; 이상윤·김용기, 1995, “조선시대 서원의 입지특성 및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3-1, 157-173; 안장현·이상해, “조선시대 서원의 역사와 서원건축,” 서원,

- 열화당, 339-357.
- 11) 현재 정회당은 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으나 근처에 김계휘 손자 金集의 묘소가 있다. 정회당은 현재 연산면 고정리의 돈암서원 내에 복원되어 있다.
 - 12) “박순, 정철, 이이, 박응남, 김계휘, 윤두수, 윤근수, 박점, 이해수, 신응시 등이 심의검과 生死의 사림을 맺고 서로 勢力을 성원하여 …”(『宣祖實錄』 선조 17년 8월 18일).
 - 13) 『靜會堂誌』 「儒狀」.
 - 14) 『靜會堂記』 「立議」條. 정회당의 지역적 배타성에 관련된 분석은 다음 논문의 해당 부분을 참고: 이연숙, 1993, “돈암서원 연구”, 충남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7-8.
 - 15) 1457년(세조 3년) 역모 사건을 해결한 공으로 원종공신 3등에 녹훈된 인물이다(『世祖實錄』세조 3년 8월 12일 기사).
 - 16) 매입하기 직전의 소유자는 최청강이 아니었던 것 같다. 최청강은 1462년 不忠과 不孝의 죄목으로 原從功臣籍에서 삭제당하고, 연산에 인접한 진산의 官奴에 처해졌다는 기록이 있다(『世祖實錄』, 세조 8년 7월 11일). 즉 적어도 1462년 이후에는 아한정 및 그 부지가 최청강에게서 박탈되어 국가나 관청의 소유로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金錫은 아한정을 국가나 관청으로부터 구입하였거나 높은 정치적 지위를 배경으로 하사받았을 것으로 본다.
 - 17) 돈암서원 경내에 복원되어 있음.
 - 18) 南冥 曹植의 수제자로서 남명학파를 이어갔다. 그는 東西 봉당시절에는 경상도에 세력권을 둔 東人 측에, 그리고 동인이 다시 남북 봉당으로 나뉠 때에는 경상남도에 세력권을 가진 북인 편에서 활동하였다(『國朝人物考』). 따라서 그는 관직에 오른 뒤 西人에 대해서는 거의 적대적인 일처리를 하였는데, 특히 1602년 대사헌으로 승진한 뒤에는 성혼 등 서인을 탄핵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장생은 정인홍의 정치 행위에 불만을 갖고 고향인 연산으로 棄官落鄉하였다.
 - 19) 전용우의 분석(1993)에 의하면, 율곡 이이의 門人は 76명 중 근거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33명인데, 이 중 2명을 제외하면 모두 비영남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4%). 구체적으로 보면, 강원 1명, 경기 9, 황해 7, 충청 4 전라 10명이다.
 - 20) “… 나는 京洛에서 生長하여, 조정에서 관직에 매달려 쓸데없는 일에 시달렸으므로 …(余生長京洛繁官於朝役塵冗)”(『遜巖書院誌』 「養性堂記」).
 - 21) 『竹林書院 都錄』.
 - 22) 臨履亭은 『詩經』 「小旻」편의 “如臨深淵如履薄水”이라는 구절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허경진, 2000, 충남지역 누정문학 연구, 태학사, 49). 즉, 학문을 임하거나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깊은 연못에 임하는 것과 같이 두려워하고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이 조심하다”는 의미이다.
 - 23) 설립자인 사계 김장생은 타계 후 죽림서원에 追配되었고, 그 뒤인 1665년에는 죽림서원에 사액이 내려지면서 유림의 합의에 따라 정암 조광조, 퇴계 이황, 우암 송시열의 위패를 추배하였다. 현재 위패의 位次는 정암-퇴계-율곡-우계-사계-우암 順으로 되어 있어서 당초의 配

- 후 순서와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생존 연대와 성리학적 계보를 고려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배향 인물 중에 영남사람과의 宗丈으로 애기되는 퇴계 이황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필자가 생각하기엔, 1659년 효종이 급서한 뒤 복제문제로 제1차 禮訟이 있었고, 여기서의 견해 차이로 인해 16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봉당 형성이 가속화되었음을 감안하면, 퇴계 이황이 죽림서원에 배향된 1660년대만 하더라도 아직 그는 영남사람과의 종장으로서보다는 조선 성리학의 대가로서 인식되던 경향이었지 않을까 사료된다. 즉, 죽림서원에 관한 유생들은 조선 성리학의 정통성과 기호학파로서의 정통성을 모두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물론 그 수렴점은 기호학파, 호서사람파를 지향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죽림서원은 명백한 기호사람파 계열의 서원인 것이다.
- 24) 『國朝人物考』.
 - 25) 金殷輝(1541~1611)는 金鎬의 아들로서 김계휘의 친형이 된다. 그러나 김은휘는 큰 아버지인 金錫에게 양아들로 들어감으로써 김계휘와 사촌지간이 되었다.
 - 26) 『光山金氏族譜』.
 - 27) “이 때에 사계 김장생은 禍를 만나 連山으로 돌아와 있으므로, (송이창은) 매번 서로 왕래하고 … 특별히 서로 잘 허가하고 알아주며 술을 나누고 때묻지 않은 곳을 거닐면서 …(時沙溪先生立遭禍歸在連鄉每相往來 … 特相善許而知已許酒相邀遙遙垢塵之外…)”(『同春堂先生文集』 卷 37, 先考靜坐窩府君 年譜 56歲條). 靜坐窩는 송이창의 號이다.
 - 28) 김장생, 김집의 자손으로서 송시열과 송준길의 門人이 된 사람은 김만균, 김만기, 김만중, 김만중, 김신망, 김용겸, 김이수, 김익경, 김익견, 김익추, 김진구, 김진규, 김진옥 등 13명이다(가나다 順).
 - 29) 참고로, 돈암서원은 양성당이 있던 장소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양성당은 돈암서원으로 흡수되었으며 그 이전의 광산김씨 서당이었던 벌곡의 정회당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돈암서원 건립과 더불어, 연산 지방에는 이이와 성혼을 배향하는 임리정·죽림서원과 김장생을 배향하는 돈암서원이 양대 서원을 이루게 되었다.
 - 30) 김장생의 연산 거주지가 ‘연산천 연안’에 있었기 때문에 ‘溪上’이라 한 것 같다.
 - 31) “沙溪文元公金先生以崇禎辛未八月易 于溪上既葬門人弟子無以寓其羹墻江漢之思則即溪上舊居之左 立祠宇…”(『遜巖書院誌』 院庭碑文).
 - 32) 총 54명의 열읍유사를 인원이 많은 순서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出處: 『遜巖書院誌』): 회덕(7): 송국시, 송석규, 송승길, 송희명, 박휘길, 이경, 정선; 니산(5): 김완, 김의립, 박설, 민여서, 이경; 옥천(4): 광현, 광지인, 유식, 정홍계; 공주(3): 손몽열, 윤빈, 황변; 연기(3): 윤정홍, 임상기, 최달원; 문의(3): 오시립, 오상관, 송지찬; 목천(3): 황중해, 김득신, 이성기; 아산(3): 윤태형, 윤현지, 김영; 청산(3): 육지관, 김중룡, 신철; 보은(3): 김근, 김용, 이후재; 전의(2): 이필원, 이지윤, 조준중; 천안(2): 이광춘, 전홍서; 직산(2): 박유서, 조건룡; 신창(2): 권책기, 이일; 평택(2): 방전, 신복홍; 영동(2): 정

- 이관, 윤덕형; 황간(2): 이준업, 박유동; 진잠(1): 최속: 온양(1): 이항; 회인(1): 박천령.
- 33) 송시열이 幼學으로, 송준길이 前洗馬로 등록되어 있다.
- 34) 이극길, 이합길, 이복길, 이희영, 이희창, 이증기, 이영선, 이항길, 이성신. 이들 중 李恒吉은 돈암서원의 출문유사에도 참여함.
- 35) 연산 지방 서북쪽으로 인접해 있는 니산의 파평윤씨는 돈암서원 창건시까지만 하여도 광산김씨, 은진송씨와 함께 호서사림파를 주도하던 3대 종족집단에 해당하였다. 파평윤씨는 16세기 중반경 니산 지방에 정착하였고 입향조는 21세 尹嘯(1519~1577)이었다. 그리고 윤돈의 손자인 윤전 및 증손인 윤윤거가 돈암서원 건립에 출문유사로서 참여하였다. 윤전의 형제인 윤황은 은진송씨와 혈연 관계를 맺고 있었다. 윤황의 손자 윤증은 회덕에 있는 안동권씨 권시의 딸을 배필로 삼았는데 권시는 송시열과 사돈지간이기도 했다. 윤전의 누이동생은 송시열 부친의 항렬인 은진송씨 송희조와 통혼하였다. 또한 윤황의 아들 윤선거는 광산김씨 김집의 문하생이었으며, 그의 아들 윤증은 송시열이 한 때 자신의 수제자로서 공인한 인물이다. 이렇듯 돈암서원이 건립 시기를 전후로 해서 파평윤씨는 광산김씨 및 은진송씨와 혈연상으로는 물론이고 학맥으로도 깊은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병자호란시 윤선거의 江華城 탈출 사건, 송시열과 학문적으로 대립했던 윤후에 대한 윤선거의 우호적 태도, 그리고 윤증이 의뢰한 윤선거의 묘지명에 대한 송시열의 '述而不作' 문구 등을 사인으로, 송시열과 윤선거·윤증 사이에는 소위 '懷尼是非'가 일었고 이로 인해 17세기 말부터 파평윤씨는 호서사림파로부터 분리되었다. 주지하듯이 회니시비는 '懷'德[은진송씨 근거지]과 '尼'山[파평윤씨 근거지]의 是非論爭, 즉 송시열과 윤선거父子 사이의 시비를 뜻하고, 나아가 영역성에 있어서의 공간 분할을 함축한다. 그 결과 18세기 이후 연산·회덕의 지역사회 영역성은 니산과 그 세력권에 들어간 충청 서부지역을 포함시키지 못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 36) 이러한 薦擧 관행은 소위 山林職의 설치를 통해서 제도화되어 운영되었다. 예를 들면, 김장생, 김집을 비롯해 송준길, 윤선거, 윤원거, 윤증 등 同一한 學問的 系譜上의 수 많은 사람들이 산림직을 통해 등용되었다. 산림직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김세봉(1994)의 논문을 참고. 이렇게 등용되는 사람들에게는 食物의 하사, 上京시 머물 가족의 수리, 상경시나 하향시 가마나 마필의 제공 등의 대우를 누리기도 했을 만큼(우인수, 1999: 34), 학문 계보망에서 비롯된 권력의 효과는 지대하였다.

文 獻

光山金氏族譜.
國朝人物考.
同春堂先生文集.

- 遯巖書院誌.
榜目列記.
沙溪全書.
恩津宋氏族譜.
靜會堂誌.
竹林書院 都錄.
司馬榜目, CD-Rom.
朝鮮王朝實錄, CD-Rom.
김덕현, 1983, "씨족촌락의 형성과정과 입지 및 유교문화경관 - 안동지방의 사족촌락을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10, 241-251.
김덕현, 2001, "역사 도시 진주의 경관 해독," 문화역사지리, 13(2), 63-80.
김세봉, 1994, "인조·효종조 산인세력의 형성과 진출," 동양학, 24, 165-190.
류제현, 1979, "농촌경관의 형태적 연구 - 여주·이천 지방을 중심으로 -," 지리학논총, 6, 96-115.
양보경, 1980, "반월면 4리 동쪽부락에 대한 연구," 지리학논총, 7, 29-52.
육한석, 1986, "영서 태백산지에 있어서 씨족의 이동과 촌락의 형성에 관한 연구," 지리학, 34, 30-46.
우인수, 1999, 조선후기 산림세력 연구, 일조각, 서울.
윤홍기, 2001, "경복궁과 舊조선총독부 건물 경관을 둘러싼 상징물 전쟁," 공간과 사회, 15, 282-305.
이간용, 1994, "씨족집단간 사회적 관계의 변화와 촌락의 공간구조," 지리교육논집, 31, 27-62.
이문중, 1988, 태안반도의 촌락형성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별호 6(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이문중, 1994, "동족촌의 인구가동과 촌락의 변모," 지리학, 30, 77-89.
임덕순, 1998, "고청주의 공간적 배치와 상징성," 대한지리학회지, 33(4), 525-540.
임병조, 2000, "조선시대 관료층의 내포지방 정착과정," 문화역사지리, 12(2), 73-96.
장보웅, 1983, "전남지방 동쪽부락의 구조와 기능," 지리학, 27, 15-30.
전용우, 1993, 호서사림파의 형성에 대한 연구, 충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종한, 2001, “본관의 누층적 의미와 그 기원에 대한 역사지리적 탐색,” *대한지리학회지*, 36(1), 35-51.
- 전종한, 2002a, “종족집단의 거주지 이동과 종족촌락의 기원에 관한 연구,” *사회와 역사(한국사회사학회지)*, 61, 87-124.
- 전종한, 2002b, “종족집단의 지역화과정에 관한 연구(I): 생태적 정착단계,” *사학연구(한국사학회지)*, 67, 131-170.
- 전종한, 2002c, “역사지리학 연구의 고전적 전통과 새로운 노정 - 문화적 전환에서 사회적 전환으로 -,” *지방사와 지방문화(역사문화학회지)*, 5(2), 215-252.
- 허경진, 2000, *충남지역 누정문학 연구*, 태학사, 서울.
- 홍현욱·최기엽, 1985, “남양홍씨 동족사회집단의 지역화과정,” *지리학연구*, 10, 383-424.
- 최기엽, 1993, “경관체험과 장소의 사회화,” *전환기의 한국지리(남계 형기주교수 화갑기념논집)*, 교학사, 서울, 71-94.
- 川島藤也, 1974, “文化柳氏にみられる氏族の移動とその性格,” *朝鮮學報*, 70, 43-74.
- Agnew, J., 1987, *Place and Politics*, Boston: Allen and Unwin.
- Entrikin, N., 1991, *The Betweenness of Plac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 Massey, D., 1993, Power geometry and a progressive sense of place, in J. Bird, B. Curtis, T. Putnam, G. Robertson and L. Tickner(eds.), *Mapping the Futures*, Routledge, London.
- Mitchell, D., 2003, Dead labor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landscape: California living, California dying, in K. Anderson, M. Domosh, S. Pile, and N. Thrift(eds.), *Handbook of Cultural Geography*, SAGE Publications, London, 233-248.
- Ogborn, M., 1996, History, memory, the politics of landscape and space work in historical geography from autumn 1994 to autumn 1995,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0(2), 222-229.
- Osborne, B., 2001, Warscape, landscape, inscape: France, war, and Canadian national identity, in I. Black and R. Butlin(eds.), *Place, Culture, and Identity: Essays in Historical Geography in Honour of Alan R. H. Baker*, Les Presses de l'Universit Laval, Saint-Nicolas(Quebec), 311-333.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ondon.
- Sack, R., 1986, *Human Territoriality: Its Theory and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Soja, E., 1985, The spatiality of social life: towards a transformative retheorisation, in D. Gregory and J. Urry(eds.),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Macmillan, London.

최초투고일 03. 07. 08

최종접수일 03. 09. 17